

문화융합 기반의 조선시대 포(袍)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김혜림·김혜연*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요약

세계가 점점 다원화되면서 현대는 융합 사회로의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포가 지닌 모더니티에 착안하여 미적 가치를 분석하고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 방법을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 포를 활용한 문화융합 기반의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 및 시각자료 분석이며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문화융합의 양상은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 사례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문화융합의 사례를 살펴보고, 포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여 작품 계획 및 결과 제시로 이루어졌다. 포의 미적 특성은 여유의 미, 단순미, 평면성, 비의 미, 담조의 미로 도출되었으며, 융합적 발상 구조에 조형 방법을 적용한 독창적인 문화융합 방법으로 제작한 작품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패션의 글로벌문화로서 서구 패션의 입체적 구조와 로컬문화로서 한국 전통의 평면적 구조를 결합시킴으로써 흥미로운 문화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둘째, 실루엣과 형태, 재질감, 색채 등을 통해 포의 미적 특성을 작품에 표현하였고, 포의 디테일로서 깃, 소매, 무, 고름, 주름, 트임 등을 코트와 원피스 드레스, 베스트 등에 활용한 결과 미적이며 기능적인 융합이 이루어졌다. 셋째, 기술적 요인인 서구식 봉제 기법은 융합에 있어서 매끄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재 기법인 주름은 실루엣 내부의 선적 표현과 재질적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반복된 사선형의 깨기 바느질 선의 표현은 작품에 모더니티를 강조하는 미적, 기술적 요인이 되었다. 넷째, 서구 패션과 한국 전통 포의 구조, 형태, 디테일, 소재 기법, 소재 배치 등을 자유롭게 교차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개성이 표현되어 일관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새로운 의미의 문화융합이 요구되는 글로벌 환경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 방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문화융합, 포(袍), 글로벌문화, 로컬문화,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김혜연, hykim@ewha.ac.kr

접수일: 2021년 10월 20일, 수정논문접수일: 2021년 12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3일

I. 서론

상상과 이미지, 예술과 디자인이 중시되는 창의 시대로서 현대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문화의 보편성 추구하고 함께 각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글로컬리즘(glocalism)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는 “인간 사고의 역사에서 가장 큰 결실을 본 발전은 두 개의 다른 생각의 선이 만나는 곳에서였다”고 언급하며 창조에서 융합(convergence)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Global Future Studies Association, 2015). 또한 Kim(1998)은 “전통이 없는 현대는 없으며, 미래의 세계가 없는 현대나 전통도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며 모더니티(modernity)를 바탕으로 ‘고유 가치’를 발전시켜 미래를 향한 오늘의 전통으로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가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패션계에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의미를 상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의 융합 패션디자인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우리 고유의 문화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정신과 미감을 통해 자리 잡은 ‘포(袍)’에 집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포가 지닌 모더니티에 착안하여 그 미적 가치를 분석하고 문화융합의 실천으로서 지역성과 세계성이 융합된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문화융합 모델로서 패션디자인을 연구하기 위해 영감원으로 선택한 조선시대 포는 전통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상징적 이미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융합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문화예술 융합 특성에 관한 연구(Kim, 2019), 글로컬 시대의 문화융합과 문화콘텐츠에 관한 연구(Lim, 2012), 컨버전스 문화현상에 관한 연구(Kim, 2008) 등이 있다. 조선시대 포를 활용한 디자인 선행연구로는 조선시대 포의 형태적 특징을 응용한 디자인 연구(Jeong, 2019; Kim, 2009; Shin, 2015) 등이 있다. 문화융합

과 관련된 연구는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융합의 유형 및 사례, 문화콘텐츠, 디자인 이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패션과 관련된 연구는 사례 및 유형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문화현상으로서 문화와 문화 간 융합의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화융합의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문화융합과 관련된 사례를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포의 미적 가치와 조형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축한 패션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여 문화융합 기반의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시각자료 분석이며, 문화융합 사례로서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의 국내외 사례에 나타난 융합적 특성과 표현 방법을 분석하여 융합적 발상의 구조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조형 방법을 적용한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 방법을 구축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글로벌문화에 속하는 서구 패션은 현 한국 사회에서 착용하는 일반복의 기본형으로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포의 종류가 다양하게 발전한 시기인 조선시대(1392-1910)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융합 사례분석을 통해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에 나타난 융합 요소인 미적 요인과 기술 요인에, 로컬문화의 패션 요소로써 선택하여 분석한 포의 미적 특성과 조형 방법을 적용하여 구축한 창의적 융합의 패션디자인 방법으로 작품 4벌을 제작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문화융합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이다. 문화에서의 융합이

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사례를 통하여 이를 재해석함으로써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디자인 프로세스에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문화융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중의 심리를 반영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문화적 요인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융합 문화를 이끌 선구자인 예술가와 같은 창의력을 지닌 융합 인재 육성을 해야 하며 융합의 핵심 키워드인 소통을 위한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Lee & Kong, 2014). 융합을 새로운 가치창출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며, 일상의 관계들을 의미 단위로 새롭게 묶어나가는 문화융합의 개념은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대미술계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문화융합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순수미술 분야를 포함하여 영상, 설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토착적 내러티브, 로컬 신화, 전통미학과 서구기술, 서구미학의 혼합 형태로 나타나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적 정신문화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작품에 융합시킨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Figure 1), 동양적 우주관을 서양화 기법과 융합한 작가 이우환(Figure 2), 한국의 상징인 달 항아리의 형을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한 근대 추상화가 김환기 등이 대표적이다(Figure 3). 또한 한국적 정서와 이미지를 소재로 보따리의 형태가 등장하는 독특한 영상과 퍼포먼스를 보여준 <Figure 4>의 김수자, 설치 미술과 융합하여 글로벌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Figure 5>의 서도호,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섬의 개념과 시각 요소를 융합하여 표현한 <Figure 6>의 피터 슈라이어(Peter Schreyer), 중국의 전통 건축을 상징하는 소재를 사용하여 현대건축으로 표현한 <Figure 7>의 왕 수(Wang Shu)와 인도의 전통과 현시대의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융합한 <Figure 8>의 발크리쉬나 도쉬(Balkrishna Doshi)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현대미술 사례는 문화융합 사

례로 볼 수 있으며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의 요인이 융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문화는 서구의 미술 개념으로부터 온 것으로 현대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술 장르를 의미하는 것이며, 로컬문화는 개별의 지역성에 기반한 전통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것이다. 각각의 사례를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의 융합 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또한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융합적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일본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일본의 전통 의상과 서구 패션을 융합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Figure 9>의 'A Piece of Cloth'는 일본의 기모노에서 영감을 받아 한 장의 천이 신체 위에서 흘러내리도록 한 디자인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구조, 형태와의 융합을 이루었고, <Figure 10>은 서양복 구조에 일본 전통 종이접기의 표현기법을 융합한 독창적인 형태를 구현하였다.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기모노의 미적 특징을 다각도로 해석하여 옷과 몸 사이의 공간을 여유 있게 만들고 착용자가 묶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짐으로 예술성과 조형성을 표현하며 미래지향적인 융합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Figure 11). 또한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은 'Ambimorphous' 컬렉션에서 터키 전통의상을 해체·분리시켜 서양의 현대의상에 접목하여 독창적인 형태 변화를 보여주었다(Figure 12). 한국적인 모티브를 활용하여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과 융합을 시도한 샤넬(Chanel)의 디자인(Figure 13), 일본 전통 버선의 형태를 재질, 색채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신발 디자인을 탄생시킨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타비 슈즈(tabi shoes)(Figure 14), 문화와 성별, 인종을 뛰어넘는 융합적 모델로서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레이스 웨일즈 보너(Grace Wales Bonner)는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는 디자인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다(Figure 15).

Table 1. 문화융합의 사례로서 현대미술.

융합 대상		작품 제목 및 내용	사례	출처
글로벌문화	로컬문화			
디지털 기술, 설치미술	불교적 개념과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부처(1974), 백남준 • 한국적 정신문화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작품에 융합시킨 비디오 아트, 설치미술 	 <p>Figure 1. TV 부처.</p>	From TV 부처. (n.d.). https://njp.ggcf.kr
서양화	동양적 우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으로부터(1976), 이우환 • 무한에 대한 탐구개념을 표현기법으로 승화시킴 	 <p>Figure 2. 점으로부터.</p>	From Park. (2021). https://newsis.com
서양화	한국적 상징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아리(1955-1956), 김환기 • 한국의 상징인 달 항아리를 형과 색채의 시각 요소를 통해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 	 <p>Figure 3. 항아리.</p>	From 항아리. (n.d.). https://terms.naver.com
장소 퍼포먼스	개념 한국적 정서 이미지 문양,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따리 트럭-이민자들(2007), 김수자 • 한국적 정서를 소재로 한 영상과 장소 퍼포먼스 	 <p>Figure 4. 보따리 트럭-이민자들.</p>	From Tak. (2013). http://www.artinculture.kr
설치미술	개념 정서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집/LA 집/뉴욕 집... (1999), 서도호 • 고향의 정서를 집이라는 구조와 형태를 지닌 설치미술과 융합 	 <p>Figure 5. 서울 집/LA 집/뉴욕 집...</p>	From Yoon et al. (2013). p. 335.
설치미술	개념 한국적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쇄원은 관계이다(2009), 피터 슈라이어 • 소쇄원에서부터 영감을 얻은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쉽'의 개념과 시각 요소를 융합하여 표현 	 <p>Figure 6. 소쇄원은 관계이다.</p>	Captured by author from KBS 역사 스페셜. (2009). https://vod.kbs.co.kr
현대건축	개념 중국의 상징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예술학교 상산 캠퍼스(2004), 왕수 • 중국의 전통 건축을 상징하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현대건축으로 표현 	 <p>Figure 7. 중국 예술학교 상산 캠퍼스.</p>	From Kim. (2012). https://www.chosun.com
개념 현대건축	인도적 정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ngath Architect's Studio (1980), 발크 리쉬나 도쉬 • 인도의 전통과 현대의 환경을 함께 생각하며 융합한 사례 	 <p>Figure 8. Sangath Architect's Studio.</p>	From Choi. (2018). https://www.dnews.co.kr

Table 2. 문화융합의 관점에서 본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

융합 요인		작품내용	사례	출처
글로벌문화	로컬문화			
소재 표현 기법(니트)	개념 일본 전통복의 구조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ey Miyake, 1976 • 발상의 전환을 통한 개념과 새로운 구조, 형태와의 융합 	 <p>Figure 9. Issey Miyake, 1976.</p>	From Issey Miyake (1978). p. 108.
새로움 지향의 모더니즘 구조 형태	종이접기 표현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ey Miyake, 2011 A/W • 기본 서양복의 구조에 일본의 전통 오리 가미 기법을 융합한 독창적인 형태 구현 	 <p>Figure 10. Issey Miyake, 2011.</p>	From Blanks. (2011). https://www.vogue.com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개념 기모노의 이미지 구조 표현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hji Yamamoto, 2016 • 기모노의 미적 특징을 적용하여 매기, 두르기, 걸치기, 겹쳐입기를 통하여 착용자가 묶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짐 	 <p>Figure 11. Yohji Yamamoto, 2016.</p>	From Verner. (2015). https://www.vogue.com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터키 민족의상 이미지 구조 형태 표현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ssein Chalayan, 2002 F/W • 터키 전통의상을 분리·해체시켜 서양의 현대의상에 접목하여 독창적인 형태 변화를 보여주는 디자인 	 <p>Figure 12. Hussein Chalayan, 2002.</p>	From Mower. (2002). https://www.vogue.com
개념 새로움 지향의 모더니즘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표현기법 재질	한국의 이미지 형/형태 색채, 재질 소재 표현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el, 2016 Cruise • 한국적인 모티브를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샤넬의 디자인 철학과 융합하고 서양복 구조에 적용 	 <p>Figure 13. Chanel, 2016.</p>	From Blanks. (2015). https://www.vogue.com
	일본의 상징 형태 색채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tin Margiela 타비 슈즈 2017 S/S, 2017 F/W • 일본 전통 버선의 형태, 색채, 재질에 변화를 주며 서구식 슈즈디자인에 활용 	 <p>Figure 14. Martin Margiela 타비 슈즈, 2017.</p>	Edited by the author from Mower. (2016/2017). https://www.vogue.com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개념 문화의 이미지 표현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ce Wales Bonner, 2016 S/S •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는 디자이너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함에 있어 로컬 문화 융합의 사례로 볼 수 있음 	 <p>Figure 15. Grace Wales Bonner, 2016.</p>	From Emerging Design Medal: Grace Wales Bonner. (n.d.). https://www.londondesignfestival.com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재질	재질 문양, 자수 표현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태옥, 1995 S/S • 한국 전통자수 기법을 넣은 베스트와 데님과 레이스를 서양 복식인 페티코트의 형태와 융합 	 <p>Figure 16. 진태옥, 1995.</p>	From ensemble. (n.d.). https://artsandculture.google.com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한글 타이포그래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봉, 2007 S/S • 한글 캘리그래피를 시각 요소인 프린트 패턴으로 풀어 원피스 드레스 구조에 적용함 	 <p>Figure 17. 이상봉, 2007.</p>	From Yu. (2015). https://www.fashionn.com
새로움 지향의 모더니즘 기본 서양복 구조 형태 재질	개념 한국적 정서 구조 형태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현민, 2020 S/S • 패턴의 조합, 봉제 순서와 방법 등의 변화를 통한 ‘낯설게 하기’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한복의 디테일과 서양의 테일러드 칼라, 아웃도어 의상, 스포츠 소재와의 융합 	 <p>Figure 18. 한현민, 2020.</p>	From Yu. (2019). https://www.fashionn.com

<Figure 16>에서 진태옥은 한국 전통자수 기법을 넣은 데님과 레이스를 서양 복식인 페티코트 형태와 융합을 시도하였다. <Figure 17>의 이상봉은 한글 캘리그래피를 시각 요소인 프린트 패턴으로 풀어 원피스 드레스 구조에 적용하였고, <Figure 18>의 한현민은 한복의 디테일과 서양의 테일러드 칼라, 스포츠 소재와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이 문화융합을 시도한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각 사례별로 문화융합의 구체적인 특성을 정리하여 도출하면 <Table 2>와 같다.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의 문화융합 사례를 통해 글로벌문화의 융합 요소와 로컬문화의 융합 요소를 구분하여 관찰한 결과, 융합적 요소에 있어

서 미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대별될 수 있었다. 미적 측면은 외재적, 내재적 요소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내재적 요인에는 개념, 정서, 표상(상징), 심상(이미지) 등이 포함되며, 외재적 요소로는 구조, 형과 형태, 색채, 재질 등이 포함된다. 기술적 측면에는 재료 표현기법, 평면 및 입체 조형기법, 시간 및 공간 구현기법 등으로 나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디자인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디자인 사고의 틀을 만들 수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융합의 방법적 개념을 나타낸 문화융합의 요소를 아래와 같이 도식으로 정리하였다(Figur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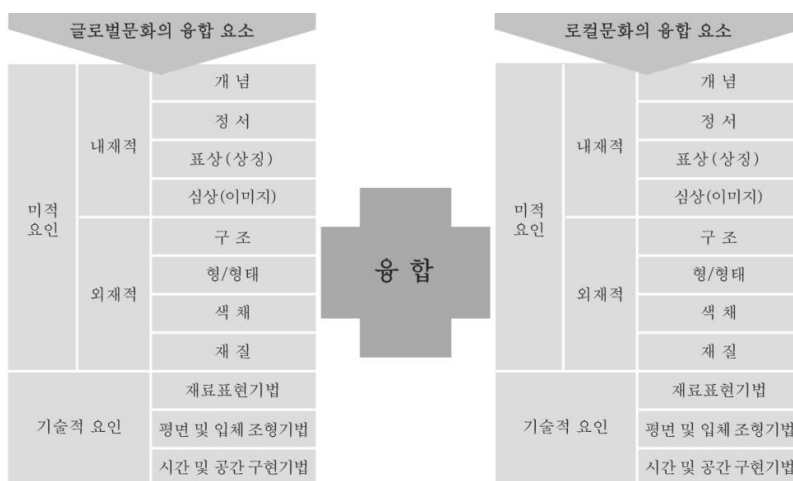


Figure 19. 현대미술 및 패션에 나타난 문화융합의 요소.

현대미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융합 요인으로서 글로벌문화의 기술적 측면은 주로 현대미술 작가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디지털, 멀티미디어 등 시간의 구현이 필요한 영상기법과 서구의 조형미가 반영된 평면조형으로서의 서양화 기법, 그리고 공간을 구현하는 설치 및 건축기법 등이 글로벌문화의 융합 요소로 나타났다. 로컬문화의 융합 요인으로서 미적 측면의 내재적 요소는 개념 및 정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정서는 그 지역의 환경, 문화, 정치 사회적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는 융합 요인으로서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개념과 함께 창의적 융합의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는, 글로벌문화의 융합 요소로 미적 측면의 외재적 요소 중 구조와 형/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디자인의 특성상 외재적으로 형태와 구조가 가장 잘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패션디자인 사례를 통해 볼 때 내재적 요소인 디자이너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지역적 정서와 상징, 심상(이미지), 외재적 요소인 전통적인 소재, 현대의 기본 서양복 구조와 형태, 색채, 재질을 포함한 미적 요인과 재료 표현기법으로 볼 수 있는 소재 표현 등의 기술적 요인이 서로 자유롭게 융합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 조선시대의 포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의복의 등장으로 한복 양식이 완성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그 당시 의문화를 일컬어 ‘포의 문화’라고 할 만큼, 여러 종류의 포를 착용하였다.

1) 포의 종류 및 특징

조선시대 포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단령, 철릭, 직령, 액주름, 답호, 도포, 두루마기, 창의, 중치막

등이 있다. 포의 종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ong(2008)은 철릭, 직령, 액주름, 답호, 도포, 중치막과 창의를 포의 종류로 선정하였으며, Kim and Chang(2015)은 단령, 직령, 창의, 도포, 답호, 주의로, Kim(2018)은 단령, 직령, 철릭, 액주름, 답호, 창의, 도포, 주의(두루마기)로 포의 종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복의 용도로 입었던 단령을 제외한 편복 포의 종류로서 직령, 철릭, 답호, 도포, 창의(대창의, 중치막, 학창의, 소창의), 두루마기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의례에서 필수적인 의복이었던 포는 특히 양반 계급에서는 평상복으로 착용되었고, 왕의 제복인 면복(冕服)에서 서민들의 혼례복까지 그 의례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착용하였다(Guem, 1994). 조선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 사회로 품계에 따라 관복제도가 세분화되어 복잡하였지만, 편복에 있어서는 왕, 왕세자, 사대부의 편복에 차이가 없었다(Ahn, 2007). 포는 깃의 형태, 소매의 너비, 상하 구성 연결, 트임과 무의 유무 등에 따라 포의 형태와 명칭, 특징 등이 분류된다. 철릭은 탈착형 소매로서 상의하상식 구성으로 하상의 주름이 특징이며, 직령은 옷깃이 직선의 형태로 단령과 같으며 좁은 무와 통수 소매를 보여준다. 액주름은 겨드랑이 아래 잔주름이 잡힌 포로, 다른 포에 비해 총 길이가 짧으며 다양한 형태의 무와 통수형과 두리 소매형이 공존한다. 답호는 옆트임이 있는 반소매거나 소매가 없는 형태로 포 위에 입는 덧옷이며, 사각형의 접음 무가 후에 삼각형 무로 변화된다. 도포는 곧은 깃에 무가 달리고 소매통이 넓으며 뒤트임과 뒷자락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창의는 옷의 한 부분이 터진 형태로 조선 후기에 들어 당의와 같이 밑단이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것도 있다. Ahn(2007)에 따르면, 창의를 모두 곧은 깃이며, 소매 너비와 트임의 위치, 무의 유무, 장식 선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명칭이 달라져 대창의, 중치막, 학창의, 소창의로 구분된다. 두루마기는 소

매통이 좁으며 두루 막힌 옷으로 후에 무와 옷고름이 더해져 오늘날과 같은 두루마기의 형태가 되었다.

2) 포의 미적 특성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포를 용도에 맞게 착용하였으며 여러 문헌의 기록과 사진 자료들을 통해 그 미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Kim(1998)은 조선시대 선비의 삶, 즉 학문 연구에 대한 선비의 의식과 이상을 추구하는 선비의 지향성을 ‘포’라는 매개체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담조(淡調)의 아름다움을 지닌 포가 표출하는 선비정신은 예술 전반에 나타나는 무위(無爲)의 정신과 상통한다고 하였고, 이는 포가 물질을 뛰어넘는 깊고 순수한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물 및 문헌에 근거한 시각적 이미지를 토대로 앞서 살펴본 포의 미적 특성과 그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여유의 미, 단순미, 평면성, 비(飛)의 미, 담조의 미로 도출하여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여유의 미는 조선시대의 포에서 한가로움의 조형으로 나타나며, 여유 있는 헐렁헐렁한 옷은 한국문화의 감각이다. 조용하고 빈 듯한 공간, 넓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한가로움의 조형은 조선시대 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여유의 미라고 볼 수 있다(Kim & Kim, 2019). 조선시대 포는 넉넉한 크기, 여유로운 실루엣, 통이 넓은 소매, 양옆 트임 및 뒤트임과

주름 등에서 여유의 미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혜원 신윤복의 <상춘야흥(賞春野興)>에서 볼 수 있는 양반이 입고 있는 중치막은 양옆 트임과 넓은 소매가 있어 여유로운 미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Figure 20), <Figure 21>의 신경유 도포는 뒤트임이 있고 무가 달려 있으며 뒷자락이 떨어져서 두 겹을 이루는 구조로 인해 더 깊고 여유로운 공간미가 특징으로 나타난다. <Figure 22>의 철릭은 양옆 트임과 주름이 있어 움직일 때 하상의 치마에 연출되는 각양각색의 선의 유희가 넉넉함과 풍성함 속에 우연으로 얻어지는 여유의 미를 나타낸다.

둘째, 단순미는 조선시대 포에서 소박함과 여백의 미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미적 특성이다. 조선시대 포의 외형은 단순한 선과 면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3>의 이직 답호는 단순한 직선과 곡선이 보이며, 직선은 수평선과 수직선에 가까운 단순한 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밑단에서 살짝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무기교의 기교’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깃 끝이 단순한 네모형이고, 마치 2개의 직사각형이 합쳐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의 생활 풍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의복에서도 <Figure 24>, <Figure 25>와 같이 단순한 색채와 소재를 사용함으로 담백하고 비장식적인 미적 특징이 단순미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의복에서 백색을 선호하였던 것 또한 소박함에서 오는 단순함의 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20. 상춘야흥(18세기).
From sangchunyaheung. (n.d.).
<http://kansong.org>



Figure 21. 신경유 도포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From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8). p. 57.



Figure 22. 철릭(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From Cheolrik 4. (n.d.).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23. 이직 답호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
From Dappo (n.d.).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24. 신언식 액주름(16세기).
From Aekjureumpo. (n.d.).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25. 직령(16세기 초반).
Fro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p. 371

셋째, 조선시대 포는 비구조적이며 평면적인 형태가 특징이다. 고름을 매어 착용하는 포는 신체 구조와는 합치되지 않는 독특한 주름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맞음새가 고려되지 않아 나타나는 잉여분의 주름들은 포의 비구조적 평면성의 결과이다. 윗부분이 삼각형으로 접혀 들어간 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Figure 26>의 사면교직 겹 답호는 착용자의 신체로 옮겨가며 잉여분이 되는 이러한 무의 형태가 평면적 형태에서 입체적 형태로 변화되며 실루엣을 형성하는 미적 특징을 지닌다. 운보문사 홀 철릭은 오른쪽 소매에 매듭단추가 달려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착용자의 행위로 인해 형태의 시각적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Figure 27). <Figure 28>의 이언충 직령은 겨드랑이 아래에 달린 무가 안팎 이중 주름으로 옆으로 뻗어 있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직령과 답호의 사각무의 형태는 그 소재와 크기에 따라 미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처럼 포는 평면적 형태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넷째, 비의 미는 한국 전통 건축과 복식에 나타나는 조형미이며, 전통 한옥의 솟아오른 곡선의 처마 끝 형태와 조선시대의 포의 모습은 날아오르는 학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비의 미는 이러한 외형의 모습을 통해 내재된 정신을 표현하는 조형미라 할 수 있다(Kim & Kim, 2019). 조선시대 포는 두리 소매의 경우, 부드러운 곡선의 아랫단이 새의 날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조형적으로 비상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포의 긴 옷고름과 다양한 방식으로 트임 처리된 하상의 옷자락은 바람에 움직일 때 비상의 이미지를 더욱 잘 보여준다. <Figure 29>의 윤선언 도포는, 뒤 중심선에 트임이 있고 뒷자락이 그 트임을 덮는 형태로 바람이 불 때 휘날리는 뒷자락에서 비의 미가 나타나며, <Figure 30>의 이단하의 중치막은 밑단에서 살짝 위로 솟아오른 곡선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비의 미가 강조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포에 사용된 소재에 따라 비상하는 아름다움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윤용구 철릭은 가벼운 무



Figure 26. 사면교직 겹 답호(16세기 초반).
Fro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p. 365.



Figure 27. 운보문사 홀 철릭(19세기).
Fro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p. 192.



Figure 28. 이언충 직령(16세기).
From Jing-nyeong.(n.d.).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29. 윤선언 도포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From Dopo. (n.d.).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30. 이단하 중치막(17세기).
From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p. 129.



Figure 31. 윤용구 철릭(19세기).
From Cheolrik. (n.d.b).
<http://museum.dankook.ac.kr>

계감으로 흔들림과 날림이 쉽고 소재의 투시감에 서도 그 가벼움이 잘 나타나 투시의 미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는 사례이다(Figure 31). 이처럼 비의 미는 새의 날개를 닮은 소매와 주름 잡힌 하상, 다양한 방식으로 트임 처리된 옆선과 소재의 가벼운 이미지, 그리고 옷고름의 흔들림과 움직임이 미적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담조의 미는 자연미와 담백의 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순우는 옅고 담담한 색조의 아름다움은 한국의 건축, 회화, 도자기, 의복에 이르기까지 자리 잡아 왔다고 언급하였다(Kim, 2010). 담백의 미는 담백한 기품을 지닌 예술가들이 높은 인격에 도달하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선비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포는 물질적인 차원을 뛰어넘은 정신적인 아름다움과 깊이를 지닌 옷으로 담백을 품은 담조의 미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포에서 볼 수 있는 <Figure 32>, <Figure 33>과 같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밝고 조용한 중성색들에서 나타나는 옅고 담담한 색조의 아름다움은 한반도가 온화한 해양성 온대 기후에 속

하는 반도적 특수성과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Kim, 2010). 흰 도포를 착용한 조선시대 문인의 초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포의 흰 빛깔은 담백한 빛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포의 흰빛은 깨끗하고 맑은 담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에 나타나는 담조의 미는 절제와 겸허로서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담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미적 사유의 태도가 전제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포의 미적 특성을 5가지로 도출하여 분석하였고, 다음 <Table 3>은 로컬문화로서 조선시대 포의 문화 요인을 융합 요소인 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3. 포를 활용한 창의적 문화융합 패션디자인 방법

본 연구는 창의적 문화융합 모델로서 조선시대 포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의적 융합의 패션디자인에 의한 디자인 사고는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의 상호성을 존중하는 융합의 실천방안으로서 융합의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 발상 구조”를 근거로 한다.

앞서 <Figure 19>를 통해 현대미술과 패션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에 나타난 융합 요소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융합의 관계로 만나게 될 각각의 융합 요소는 크게 미적 요인과 기술적



Figure 32. 두루마기(1880).
From Durumagi. (n.d.).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33. 대창의(18세기 초반).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5). p. 146

Table 3. 조선시대 포의 문화 요인.

구 분			내 용
미적 요인	내재적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시대의 사회제도 및 사회의 지향가치를 투영하는 대표적 의복문화 상고시대부터 시작되어 20세기 초까지 다양하게 변천하고 포용적으로 완성된 문화유형의 일종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교 문화의 예의 사대부 및 선비의 정신 다양성 및 위계성
		심상(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유의 미 단순미 평면성 비의 미 담조의 미
	외재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릭, 직령, 액주름, 답호, 도포, 창의, 두루마기 등의 개별 특성을 갖는 외투형 구조 몸판, 소매, 무 조합의 평면형 구조 몸판을 겹치고 묶어 고정하는 여밈의 구조 무라고 하는 특이한 여유분 긴 트임 및 짧은 트임 도포의 경우 뒤트임을 덮는 전삼이 달린 구조
		형/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선과 지극히 완만한 곡선의 외곽을 가진 형 깃과 소매에 부여되는 곡선 신체 형태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은 넓은 공간형 주름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색, 백색 계열이 가장 다수 청색, 아청색, 남색, 옥색, 초록색 등의 푸른 계열 황색, 황단색, 토홍색, 홍색 등의 노랑고 붉은 계열 검푸른색, 회색 등의 무채색 계열 일부 단을 배색한 경우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단색 표현이 대부분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 마, 견의 천연 재료로부터 오는 재질감 무명 등의 답백한 표면감 공단 등의 얇은 광택감 홀감 및 겹감 사용의 표면감
	기술적 요인	소재 표현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주, 무명, 모시, 삼베 등의 곱거나 거친 투시소재 심, 겹 등을 넣은 소재, 외주름 및 맞주름 소재 숨을 넣은 누비 소재 자연을 응용한 문양 직조
		재단/봉제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면형 재단 기법 무, 주름 등의 재단 기법 깨끼바느질 기법 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미적 요인은 내재적 요소로서 개념, 정서, 이미지, 상징 등이 있고, 외재적 요소로는 구조, 형과 형태, 색채, 재질 등을 제시하였다. 기술적 요인에는 재료 표현기법, 평면 및 입체 조형기법, 시간 및 공간 구현기법 등이 분석되었다. 이상의 기술적 요인들을 문화융합 패션디자인의 연구를 위한 기술적 어휘로 구체화하면 소재 표현기법, 재단/봉제기법 등에 해당한다.

또한 로컬문화의 융합 요소로서 내재적 요소인 상징은 문화융합 패션디자인 사례분석 결과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디자인 연구에서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섯 가지 포의 미적 특성은 내재적 요소인 심상(이미지)에 적용된다. 이상의 내용을 패션디자인 분야에 적용하여 창의적 융합의 패션디자인 방법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면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에 대한 각각의 범위 설정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로컬문화로서 조선시대 포를 한정하였고, 이에 따라 융합의 대상으로서 글로벌문화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로컬문화로서 조선시대의 포가 갖는 문화 요인은 앞서 <Table 3>에서 제시하였다. 글로벌문화의 융합 요소로서 미적 요인 중 내재적 요소로서 개념 및 정서는 세계화 및 근대화의 상징적 의복 문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서구의 문화, 종교, 사회적 변천 과정이 투영되며 합리성 및 보편성을 지닌다. 서유럽 문화사 기반의 조형미와 인체미를 존중하고 새로움을 지향하는 모더니즘의 미학을 지닌 서양복은 내재적 요소의 심상(이미지)에 해당한다. 글로벌문화의 미적 요인 중 외재적 요소로서 구조 및 형태는 의복 환경으로서 과학적 사고에 근거한 의복 공간, 즉 인체미를 존중하는 입체형의 아이템별 다양한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대의 일상복으로 정착한 서양복 구조의 적용이 가장 눈에 띄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창의적 융합의 패션디자인 방법으로서 글로벌문화의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코트, 원피스 드레스 등을 글로벌문화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와 같이 글로벌문화와 로컬문화의 범위 선정을 선행하고 이후 각 문화 요인들을 융합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 과정에서 활용되는 조형 방법으로 결합, 분리, 확대, 이동, 도치, 추가, 제거, 집합, 반전, 절단, 침투, 회전, 인접, 중첩의 방법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융합을 위한 패션디자인 방법으로서 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자유롭게 융합할 시, 위에서 제시한 총 14가지의 다양한 조형 방법 중 필요한 방법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Figure 34>와 같다.

III. 문화융합 기반의 조선시대 포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1. 디자인 계획

본 연구는 앞서 문화융합의 사례로부터 융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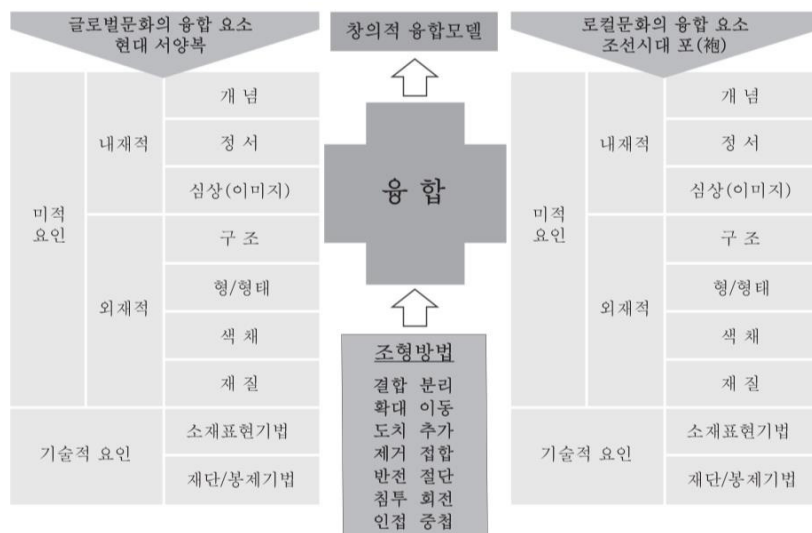


Figure 34.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 방법.

발상 구조를 도출하여 이로부터 창의적 융합 패션 디자인 방법을 구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발상 과정에서 서구 패션과 조선시대 포의 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융합시킬 때 앞서 제안한 조형 방법 중 결합, 분리, 확대, 이동, 도치, 추가, 침투, 인접, 중첩 등을 적용하여 디자인을 모색하였다. 로컬문화로서 조선시대 포가 갖는 미적 요인 중 내재적 요소인 개념과 정서는 조선시대 선비의 정신세계, 즉 선비정신에서 비롯된 절제와 당당함, 기품, 여유의 멋을 기본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개념과 정서 외에도 조선시대 포의 미적 요인 중 내재적 요소로서 심상인 이미지를 응용하는데 그것은 앞서 연구하여 포의 미적 특성으로 제시한 바 있는 여유의 미, 단순미, 평면성, 비의 미, 담조의 미이다. 또한 포의 미적 요인 중 외재적 요소로서 구조와 형태 외에도 색채, 재질 등을 융합 요인으로, 기술적 요인으로 소재 표현기법과 재단/봉제기법을 융합 요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문화인 서구 패션에 나타난 미적 요인으로서 로컬문화인 포와 기능 및 구조의 측면에서 유사한 서양복의 코트와 베스트, 그리고 원피스 드레스의 기본 구조와 형태, 디테일을 활용한다. 글로벌문화에 대응하는 로컬문화의 미적 요인으로서 조선시대 포에 나타나는 구조와 형태, 디테일은 포의 기본 사각형 패턴, 직령, 창의, 도포, 답호, 철릭의 구조와 형태, 소매의 탈착 구조, 포의 여밈, 소매의 배래선과 고름, 무, 깃과 같은 디테일이다. 고름은 장식성과 함께 합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무의 경우는 포의 실루엣을 결정했던 요소로서 현대적 사용에 있어서도 옆트임에 부착하여 활동성뿐 아니라 독특한 실루엣을 형성하는 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 융합적 발상 과정에서 조선시대 포의 미적 특성인 여유의 미, 평면성, 단순미, 비의 미, 담조의 미를

미적 요인으로 적용하며, 각 작품마다 다섯 가지의 심상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셋째, 글로벌문화로서 현대 서양복의 패턴 작성법 및 전반적인 봉제 기법을 융합의 기술적 요인으로 활용한다. 이에 대응하는 로컬문화의 기술적 요인으로는 조선시대 포에 나타난 주름과 깨끼 바느질을 활용한다. 이러한 전통 소재 기법은 그 기능성 뿐 아니라 미적, 장식적 목적을 두고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색채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즐겨 착용했던 백색 포의 이미지에 근거하여 담조의 미에 역점을 둔 백색과 옅고 담담한 소색에 가까운 색채를 주요 색채로 계획한다. 다섯째, 서구 패션의 미적 요인 중 재질에 있어서 기능성 소재인 에어쿠션과 에어메쉬(airmesh)를 기본 형태에 사용하고 면실크, 폴리 오간자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포에 사용되었던 소재와 시각적으로 유사한 재질의 실크(silk) 오간자, 명주 등을 미적 요인에 근거한 소재로서 선택한다. 여섯째, 조형 방법 중에서 융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조형 방법으로서 결합, 중첩, 이동, 추가 등 네 가지를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디자인을 전개한다.

본 연구의 작품 제작을 위한 전체 디자인 계획 과정을 도식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Figure 35>와 같다. 작품 4벌의 각 디자인에 대한 세부 디자인 계획표는 <Table 4>로 정리하였다. 또한 디자인의 개성과 작품의 미적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4벌의 작품은 전문 촬영을 의뢰하였다.

2. 디자인 제안 및 해설

1) 작품 I

작품 I은 글로벌문화 요소인 서양복의 아이템 중 코트의 구조를 변형하여 결합, 이동, 침투, 인접의 조형 방법으로 디자인을 전개한 작품이다. 상의와 하의를 따로 만든 후 결합한 철릭의 구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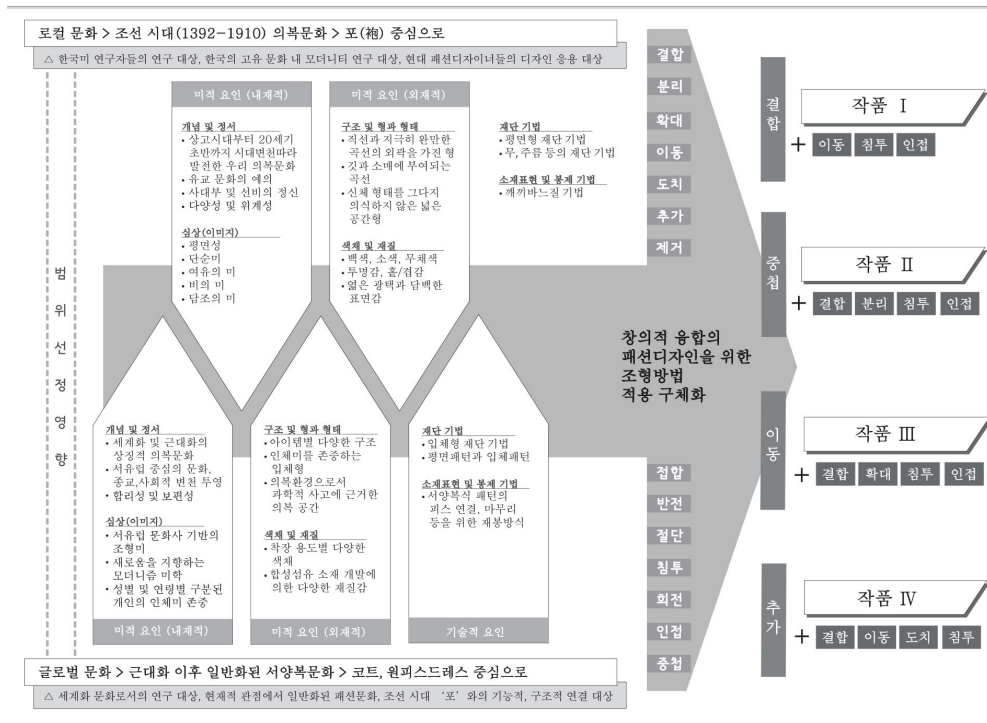


Figure 35. 디자인 계획 과정

담호의 반소매, 철릭의 시각적 표현특징으로 볼 수 있는 주름을 소재 표현기법으로 활용하여 융합한 디자인이다(Figure 36). 주름의 형태는 코주름의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상의의 칼라는 포의 깃의 형태에 서양복의 테일러드 칼라의 형태를 침투시키며 에어쿠션(aircushion)과 오간자(organza) 소재를 인접시켜 칼라의 독특한 형태가 돋보이게 하고, 도포의 전삼의 형태를 옆선으로 이동시킨 디자인으로 창의융합의 발상 디자인을 시도하였다(Figure 37). <Figure 38>과 같이 평면성, 단순미를 지닌 디자인으로 철릭의 주름을 부분적으로 인접시켜 여유의 미가 나타나도록 하였고, 비의 미, 담조의 미 등의 포의 미적 특성을 융합시켰다. 기술적 요인으로 서구의 패턴작성법, 봉제기법과 철릭의 주름을 융합시켜 적용하고 소재는 실크 오간자, 실크, 에어쿠션, 폴리(poly) 노방을 사용하였다. 색채는

화이트와 아이보리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2) 작품 II

작품 II은 글로벌문화 요소인 서양복 코트와 융합함에 있어 중첩, 결합, 분리, 침투, 인접의 조형 방법으로 디자인을 전개한 작품이다. 조선시대 포의 소매 배래선의 완만한 곡선을 아웃라인에 침투시켜 적용한 단순한 타원형의 평면적 형태 2장이 결합된 코트의 구조가 인체에 입혀지며 생성되는 실루엣으로 단순미와 평면성이 돋보이도록 디자인한 작품이다(Figure 39). 타원형의 평면 형태에 인접시킨 소매의 형태는 철릭과 창의에서 볼 수 있는 탈착형 소매로, 양쪽 소매 모두 소매가 분리되도록 디자인하여 반소매와 긴소매의 형태로 모두 착장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Figure 40). 캐키 바느질 선을 사선으로 구성한 비치는 오간자를 코트 위에 중첩의 방법

Table 4. 디자인 계획.

	융합 요인				조형 방법	아이템	소재	색채	스타일
	글로벌문화		로컬문화						
	현대 서양복 코트/원피스 드레스		조선시대 포						
작품 I	미적 요인	테일러드 칼라/ 재질(에어쿠션)	미적 요인	이미지(평면성, 단순미, 여유의 미, 비의 미, 담조의 미)/담조의 형태/ 철릭의 구조/도포의 전삼	결합 이동 침투 인접	베스트 코트	실크 오간자. 실크. 에어쿠션. 폴리 오간자.		
	기술 요인	패턴작성법 봉제기법	기술 요인	철릭의 주름					
작품 II	미적 요인	코트의 기본구조	미적 요인	이미지(평면성, 단순미, 여유의 미 비의 미)/소매의 배래선/탈착형 소매/	중첩 결합 분리 침투 인접	코트	면 실크. 실크 오간자.		
	기술 요인	패턴작성법 봉제기법	기술 요인	봉제 기법 (깨끼 바느질)					
작품 III	미적 요인	원피스 드레스의 기본 구조	미적 요인	이미지(평면성, 여유의 미, 비의 미, 담조의 미)/ 깃의 형태/고름의 형태	이동 결합 확대 침투 인접	원피스 드레스	명주. 면 실크. 실크 오간자.		
	기술 요인	패턴작성법 봉제기법	기술 요인	액주름의 맞주름					
작품 IV	미적 요인	코트의 기본 구조/ 재질(에어쿠션, 에어메쉬)	미적 요인	이미지 (여유의 미, 비의 미)	추가 결합 이동 도치 침투	코트	에어쿠션. 에어메쉬. 폴리 오간자. 실크 오간자.		
	기술 요인	패턴작성법 봉제기법	기술 요인	철릭의 주름/ 삼각무의 형태					



Figure 36.
작품 I의 전면.
(2020, May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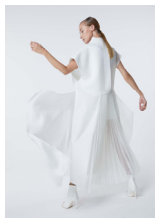


Figure 37.
작품 I의 후면.
(2020, May 10).



Figure 38.
작품 I의 디테일.
(2020, May 10).



Figure 39.
작품 II의 전면.
(2020, May 10).



Figure 40.
작품 II의 소매
디테일.
(2020, May 10).



Figure 41.
작품 II의 스타일링
이미지.
(2020, May 10).

으로 겹치고, 그 아래에 얹어진 검은색의 원단과 뒤 중심선과 암홀에서만 봉제해줄 때 겹쳐진 2개의 원단 사이에 공간적 여유를 주어 여유의미를 나타내도록 하였다(Figure 41). 이 때 생성된 여밈분은 넘어가는 방향에 따라 우아한 곡선을 형성하며 하늘거

리는 이미지를 구현하여 비의미를 나타내었다. 소재는 면 실크와 실크 오간자를 사용하고 기술적 요인으로 서구의 패턴작성법, 봉제기법과 깨끼 봉제기법을 융합하였다. 색채는 블랙과 아이보리를 결합함에 있어 불투명과 투명한 소재를 겹쳐서 이용



Figure 42.
작품 III의 전면.
(2020, May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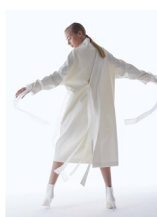


Figure 43.
작품 III의 후면.
(2020, May 10).



Figure 44.
작품 III의 후면
디테일.
(2020, May 10).



Figure 45.
작품 IV의 전면.
(2020, May 10).



Figure 46.
작품 IV의 후면.
(2020, May 10).



Figure 47.
작품 IV의 스타일링
이미지.
(2020, May 10).

함으로써 소재의 대비 효과로 인해 각 부분이 더 돋보이며 모던한 이미지를 주도록 디자인하였다.

3) 작품 III

작품 III은 글로벌문화 요소인 서양복 원피스 드레스의 구조와 융합함에 있어 이동, 확대, 침투, 결합, 인접의 조형 방법으로 디자인을 전개한 작품이다. 포의 깃의 앞여밈 형태를 이동시켜 후면에 배치하고 액주름의 맞주름을 이동 및 확대 적용시켜 원피스 드레스의 앞 중심부에 배치하여 넉넉한 품을 지닌 여유의 미가 더해지도록 하였다(Figure 42). 고름은 원피스 드레스의 뒤 여밈선, 옆선, 소매단에 인접시키며 길게 늘어지도록 디자인하여 실제로 착용하여 움직일 때 긴 고름의 띠 형태들이 가볍게 휘날리며 날아가는 듯한 비의미를 창출하도록 의도하였다(Figure 43). 뒤 여밈선에는 깃의 형태를 침투시켜 결합한 디자인으로 뒤쪽에서 묶는 고름의 착용방식에 따라 품의 조절이 가능한 평면성이 강조된 디자인이다(Figure 44). 기술적 요인으로는 서구의 패턴 작성법, 봉제 기법과 액주름의 맞주름을 융합하였고, 소재는 명주, 면 실크, 실크 오간자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크림과 아이보리 등 온화한 색채의 사용으로 통일함으로써 옅고 담담한 색조의 사용으로 인해 담조의 미가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4) 작품 IV

작품 IV는 서양복 코트의 구조와 융합함에 있어 로컬문화인 철릭의 주름 잡힌 하상을 추가, 도치시켜 등 부분으로 이동한 작품이다. 또한 포의 삼각무에 주름을 침투시켜 코트의 옆선에 결합한 디자인으로, 양 옆선의 트임에 풍성한 주름을 구성함으로써 여유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Figure 45). 포의 실루엣을 결정해주었던 무의 형태는 작품에서 아코디언 주름을 잡은 삼각무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주름으로 채워진 공간과 비워진 공간으로 인해 공간의 병치미가 나타나도록 하며, 등 부분의 주름 패널은 등 뒤의 곡선적인 주름 덩어리와 직선적 주름선으로 인해 움직일 때 울동미가 나타나며 비상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도록 디자인하였다(Figure 46). 기술적 요인으로는 서구의 패턴 작성법, 봉제기법을 철릭의 주름과 융합하였다. 소재는 에어쿠션과 에어메쉬 소재를 인접시킴으로 서로 대비가 되어 형태가 잘 드러나는 효과를 주었으며, 주름에는 비치는 소재의 폴리 오간자, 실크 오간자를 함께 사용하였다(Figure 47).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소재는 색채를 블랙으로 통일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모던한 이미지가 극대화되도록 디자인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문화융합 기반의 조선시대 포를 활

용한 패션디자인 연구로, 포가 지닌 모더니티에 착안하여 그 미적 가치를 분석하고 지역성과 세계성이 융합된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포를 활용하여 현대 패션의 글로벌문화인 서구 패션과의 융합을 도모하고자 새롭게 구축한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 방법을 적용하여 4벌의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시하였다.

창의력이 핵심 가치인 문화융합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융합의 요소로는 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으로 대별될 수 있었다. 미적 요인은 외재적·내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내재적 요소에는 개념, 정서, 표상(상징), 심상(이미지) 등이 있고, 외재적 요소로는 구조, 형태, 형태, 색채, 재질 등이 있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재료 표현기법, 평면 및 입체 조형기법, 시간 및 공간 구현기법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현대미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융합 요인으로서 글로벌문화의 기술적 측면은 주로 현대미술 작가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로컬문화의 융합 요인으로서 미적 측면의 내재적 요소는 개념 및 정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는, 글로벌문화의 융합 요소로 미적 요인의 외재적 요소 중 구조와 형/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요소인 디자이너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지역적 정서와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와 심상 이미지, 외재적 요소인 전통적인 소재, 현대의 기본 서양복 구조와 형태, 색채, 재질을 포함한 미적 요인과 소재 표현기법 등의 기술적 요인이 서로 자유롭게 융합된 양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융합디자인 실천을 위해 로컬문화의 패션 요소로서 선택한 포는 직령, 철릭, 액주름, 담호, 도포, 창 의(대창의, 중치막, 학창의, 소창의), 두루마기 등이다. 선정한 포의 특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포는 소매의 길이와 트임의 유무, 무

의 유무로 분류하였으며, 포의 미적 특성으로는 여유의 미, 단순미, 평면성, 비의 미, 담조의 미로 도출되었다.

융합의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융합적 발상 구조를 토대로 한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을 위하여 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의 외재적 요소들을 다루는 융합적 발상 과정에서 창조적 사고를 촉발하는 조형 방법들을 적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조형 방법으로는 결합, 추가, 인접, 침투, 중첩, 분리, 도치, 이동, 확대 등이다.

문화융합 모델로서 창의적 융합 패션디자인 방법을 실제 작품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패션의 글로벌문화로서 서구의 조형과 우리 고유의 조형을 접목하며 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융합하는 디자인을 시도하여 흥미로운 문화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둘째, 창의적 융합의 패션디자인 발상을 위하여 디자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구조와 구조, 형태와 형태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조형 방법을 적용한 결과, 독특한 제3의 구조와 형태를 구현할 수 있었다. 셋째, 포의 다섯 가지 미적 특성인 여유의 미, 단순미, 평면성, 비의 미, 담조의 미를 작품에 표현하고자 주력한 결과 실루엣과 형태, 재질감, 색채 등을 통해 이를 적용할 수 있었다. 넷째, 포의 디테일로서 깃, 소매, 무, 고름, 주름, 트임 등을 코트와 원피스 드레스, 베스트 등에 활용한 결과 미적이며 기능적인 융합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색채는 담조의 색채미를 은은하게 표출하는 화이트와 아이보리를 주로 사용하면서 블랙을 제한적으로 선택하여 형태적 단순미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여섯째, 기술적 요인인 서구식 봉제기법은 융합에 있어서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전체와 전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재 기법인 주름은 실루엣 내부의 선적 표현과 재질적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반복된 사선형의 깨끼

바느질 선 소재 표현은 작품에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미적, 기술적 요인이 되었다. 일곱째, 모든 작품에 서구 패션과 한국 전통 포의 구조, 형태, 디테일, 소재 기법, 소재 배치 등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차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개성이 표현되면서도 일관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문화의 상호작용성과 창의적 융합의 패션디자인의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문화적 포용력을 내포하는 새로운 의미의 문화융합이 요구되는 글로벌 환경의 시대에 부응하고 차별화된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다른 예술 분야와의 융합 연구로도 확대될 기대한다.

References

Aekjureumpo. (n.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October 7, 2021, from https://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8770&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0&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C%95%A1%EC%A3%BC%EB%A6%84

Ahn, M. S. (2007). *우리 옷 이야기* [A Story of Our Clothes]. Seoul: Yehaksa.

Choi, J. H. (2018, March 19). [건축트렌드]2018프리츠커상 수상-발크리쉬나 도쉬 [Architecture Trend] 2018 Pritzker Prize Winner - Balkrishna Doshi]. DNEW S.co.kr. Retrieved January 8, 2020, from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803161058332080308>

Blanks, T. (2015, May 4). Chanel. *VOGUE RUNWAY*. Retrieved October 7,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16/chanel>

Blanks, T. (2011, March 3). Issey Miyake. *VOGUE RUNWAY*. Retrieved October 7,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ready-to-wear/issey-miyake>

Cheolrik. (n.d.b).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October 7, 2021, from https://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0127&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0&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C%B2%A0%EB%A6%AD

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0127&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0&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C%B2%A0%EB%A6%AD

Cheolrik 4. (n.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October 7, 2021, from https://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9407&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0&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Relic_WAR_museumportlet_sRelicType=0002&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C%B2%A0%EB%A6%A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8). *정사공신 신경유공 墓 출토 복식* [Jeongsagongshin, a military officer, Shin Gyung-yoo's tomb excavation costume study]. Yongin: Dankook University Press.

Dopo. (n.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September 30, 2020, From https://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9478&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1&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B%8F%84%ED%8F%AC

Durumagi. (n.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October 7, 2021, from https://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0299&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0&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B%91%90%EB%A3%A8%EB%A7%88%EA%B8%B0

Emerging design medal: grace wales bonner. (n.d.). *London Design Festival*. Retrieved October 7, 2021, from <https://www.londondesignfestival.com/emerging-design-medal-grace-wales-bonner>

Geum, K. S. (1994). *조선복식미술*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Paju: Youlhwadang.

Global Future Studies Association. (2015).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융합과 초연결의 미래, 전문가 46인이 예측하는 대한민국 2035* [Korea Future Report: The future of convergence and hyperconnectivity, South Korea 2035 predicted by 46

- experts]. Paju: Kyobomungo.
- Hong, N. Y. (2008). The periodization of men's coat(Peonbokpo)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excavated costum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5), 118-133.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i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문화재대관 2[Overview of Cultural Heritage 2].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Jeong, J. R. (2019). *A study on women's costume applying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 Jing-nyeong. (n.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October 7, 2021, from https://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9005&_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_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0&_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_Relic_WAR_museumportlet_sRelicType=0002&_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C%A7%81%EB%A0%B9
- Kim, H. L., & Kim, H. Y. (2019). A study on modern fashion design applying formative beauty of Cheollik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Journal of Fashion Design*, 19(2), 163-180. doi:10.18652/2019.19.2.10
- Kim, J. A. (2018). *A study on the change of shapes per element of Pyeonbokpo (men's coat) design in Joseon period : focused on the clothing excavated in the tombs between the 15th to the 18th century*. Unpublished doctoral thesis, Konkuk University, Chungju.
- Kim, M. H. (2008). A study of the cultural convergence phenomenon in contemporary fash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46(4), 61-69.
- Kim, M. R. (2012, February 29). 무명의 토중 中 건축가, 세계 건축계를 놀라게 하다 [An unknown native Chinese architect surprises the global architecture]. *chosunilbo*. Retrieved October 12, 2020,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9/2012022900213.html?form=MY01SV&OCID=MY01SV
- Kim, M. S. (2010). *최순우의 한국미애* [Choi Sun-woo's Korean beauty love]. Ik san: Dongnampung.
- Kim, S. A. & Chang, M. J. (2015). A study in shape alternation of the gusset of men's Po in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3(2), 10-21. doi:10.35226/kskd. 2015.13.2.10
- Kim, S. Y. (2019). Characteristics of culture and arts convergence in fashion brand Mami.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37(3), 59-76. doi:10.17548/ksaf.2019.06. 30.59
- Kim, W. K. (2009). A study on women's coat design using Dapho.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9(4), 19-30.
- Kim, Y. G. (1998). *한국인의 기질과 성향을 통해 본 한국미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aesthetics looks through Korean habitu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Issey Miyake. (1978). *ISSEY MIYAKE East Meets West*. Tokyo: 平凡社.
- Lee, S. B., & Kong, M. S. (2014). *글로벌시대를 위한 융합의 이해* [Understanding of Convergence for Global Era]. Paju: Gyomoonssa.
- Lim, J. C. (2012). *A study on culture convergence and the role of media contents in Global / Glocal era*. Unpublished doctoral thesis, Hankuk University, Seoul.
- Mower, S. (2016, September 28). Maison Margiela. *VOGUE RUNWAY*. Retrieved March 11,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
- Mower, S. (2002, March 7). Chalayan. *VOGUE RUNWAY*. Retrieved March 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02-ready-to-wear/chalayan>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5). *한민족역사문화 도감* [Comprehensive catalogue of Korean costume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collection]. Seoul: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Park, H. J. (2021, August 12). 국립현대미술관, 올해도 국립미술관과 협력展...수원·정읍·제주 [National Museum of Modern & Contemporary Art, A Collaboration with Public Art Gallery...Suwon, Jeongeup, Jeju]. *Newsis*. Retrieved October 2, 2021, fr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2_0001546229
- Shin, J. Y. (2015). *Design of contemporary children's coat applied with overcoat of Chosun dynas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Tak, Y. J. (2013, January 18). 제55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미리보기 [Preview of the Korean Exhibition at the 55th Venice Biennale]. *Art*. Retrieved October 7, 2021, from <http://www.artinculture.kr/online/1320>
- TV 부처[Buddha]. (n.d.). *NAM JUNE PAIK ART CENTER*. Retrieved October 27, 2021, from <https://njp.ggcf.kr/tv-부처>
- Verner, A. (2015, October 2). Yohji Yamamoto. *VOGUE RUNWAY*. Retrieved October 7,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yohji-yamamoto>
- Yu, J. B. (2015, October 21). 30주년을 맞은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의 삶과 패션 [The life and fashion of fashion designer Lee Sang-bong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FASHIONn*. Retrieved October 8, 2021, from https://www.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1010&number=13705
- Yu, J. B. (2019, June. 10). [리뷰] 한현민의 런던 데뷔, 2020 봄/여름 윈(MUNN) 컬렉션 [Review] Han Hyeon Min made his debut in London, 2020 s/s MUNN Collection]. *FASHIONn*. Retrieved October 8, 2021, from https://www.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1028&number=28974
- Yun et al. (2013). *한국현대미술읽기* [Reading of Korean Contemporary Art]. Seoul: Noonbit Publishing.

- [13th]역사스페셜[Conversations with the past]. (2009, October 10). *KBS*. Retrieved September 30, 2020, from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_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9-0419&program_id=PS-0001082470-01-000&broadcast_complete_yn=Y&local_station_code=00§ion_code=05§ion_sub_code=08
- 상춘야흥[sangchunyaheung]. (n.d.).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Retrieved October 7, 2020, from <http://kansong.org/collection/sangchunyaheung>
- 앙상블[ensemble]. (n.d.). *Google Art & Culture*. Retrieved October 7, 2021, from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EC%95%99%EC%83%81%EB%B8%94-%EC%A7%84%ED%83%9C%EC%98%A5/0gFkkMbgo_4KtA?hl=ko
- 항아리[jar]. (n.d.). *네이버 미술향과[Naver Art Encyclopedia]*. Retrieved September 30, 2021,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18927&cid=46721&categoryId=46901>

A Study on Fashion Design Applying Po(袍)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Based on Cultural Convergence

Kim, Hye Lim · Kim, Hea Yeon⁺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global diversification, today advance to the convergent society is being done rapidly. Hence, paying attention to modernity of a coat(Po), this study aims to analyze its aesthetic values and establish a methodology for the creative and convergent fashion design, suggesting the fashion design works based on cultural convergence using Po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ies, literature study and visual material analysis were conducted, and as for the cultural convergence intensively discussed in this research, case analysis was done for contemporary art and fashion design. As for the research content, it examined cases of cultural convergence and deriv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o, planning and suggesting the works based on the above. As for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o, beauty of composure, simplicity, flatness, flight and calmness was derived and fashion design works were produced via the original formative methods of cultural convergence based on the convergent ideas as follows. Firstly, intriguing cultural convergence could be achieved by combining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western fashion, global culture of modern fashion, with flat structure of traditional Korean fashion. Secondly,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o could be expressed into the works through a silhouette, form, texture and a color. In addition, aesthetic and functional convergence was accomplished by applying details of Po such as a collar, sleeve, gusset(Mu), string, fold and opening to a coat, one-piece dress and a vest. Thirdly, western sewing techniques as technical factors allowed seamless convergence and as one of material techniques a fold enriched linear and textural expressions of the silhouette. Furthermore, expressions of repeated oblique Ggaeggi lines acted as the aesthetic and technical factors to emphasize modernity of the work. Fourthly, the characteristic design could be expressed and consistent image could be created by crossing the structures, forms, details, material techniques/arrangements of Western fashion and traditional Korean Po. Therefore, it is expected for the study to contribute to suggesting methods to develop differentiated fashion design satisfying the era of the global environment in which cultural convergence having the novel significance is required.

Key words : cultural convergence, Po(袍), global culture, local culture, creative and convergent fashion design

